

#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지원 중단과 수출산업 육성

## - 양돈농가, 품질개선비 계속 지원 요구

김동성  
(본회 홍보부장)

98년 돼지고기 8만8천톤 수출-일본시  
장 점유율 18%로 급증

**지**난 해 우리 나라는 일본에 8만8천3백여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하여 3억1천2백만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수출량은 97년에 비해 무려 71%나 증가했다. 농축산 전품목을 통틀어서도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일본 시장 점유율도 97년 9%에서 18%로 배 이상 늘어났다. IMF 구제금융을 받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얻은 결과이기에 더욱 값진 열매가 아닐 수 없다. 양돈산업이 수출효자산업으로 부상한 것이다.

물론 이같은 결과는 대만이 97년에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을 전면 중단한데 따른 반사이익적 성격이 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양돈업계와 육가공업계의 노력에 기인한 바 크다 하겠다. 그중에서도 1등 공신은 규격돈을 생산하는 양돈농가에 지원해준 “돼지고기 품질개선비”라는데 이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돼지고기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규격돈 1두당 A등급은 7,000원, B등급은 5,000원의 품질개선비를 보조해 줬다. 총 4백만두에 128억원의 자금지원을

배정했다. 이같은 액수는 96년 2백70만두에 108억원, 97년 3백만두에 120억원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양돈농가들이 규격돈을 생산해서 수출 육가공업체에 납품할 의욕이 생겼고, 규격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상쇄했던 것이다.

### 정부, 금년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지원 전면 중단

그러나 정부가 금년부터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지원을 일시에 전면 중단하면서 돼지고기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몇 년간 계속 지원해온 자금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면서 규격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양돈농가들의 입장에서 정부는 양돈산업을 앞으로도 계속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었고, 굳이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수출규격돈”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된 것이다.

실제 농진청 등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양돈농가들이 “수출규격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00kg의 비육돈을 생산할 때보다 kg당 7.6%의 생산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규격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세를 해야 하고,



반드시 비육후기사료를 급여하면서 105~120kg까지 사육해야 한다. 이로 인해 양돈농가들은 비육기간 연장에 따른 사료비 15.9%와 방역치료비 24.2%, 분뇨처리 및 시설비 부담 등으로 18.8%의 경영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설부족에 따른 밀사와 이로 인한 성장 지체, 자금회전 연장으로 인한 자금난까지 감안하면 규격돈을 생산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처럼 규격돈 생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돼지고기 품질 개선비” 지원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부터 전면 중단될 위협에 빠진 것이다.

###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생산비 7.6% 추가 부담

정부는 금년에 약 9만톤의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할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는 일본의 총 돼지고기 수입량의 약 18%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IMF체제를 겪으면서 수입감소와 실업증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돼지가격도 생산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약세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수출업체에서는 저렴한 수출 원료돈을 확보할 수 있었고, 환율 상승으로 수출 여건이 좋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금년의 돼지고기 수출 여건은 작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원화 환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 나라와 일본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돼지가격은 27년이래 최저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100kg 생체 한 마리에 22달러(한화 약 26,400원)까지 하락했다. 최근에는 60달러(약 72,000원)선까지 회복되긴 했지만, 우리 나라의 돼지가격과 비교하면 아직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국이 자국산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해외수출을 대폭

늘릴 것은 불을 보듯 흰하다. 덴마크 등 유럽도 돼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찬가지다.

### 명칭 바꿔서라도 품질개선비 계속 지원 필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지난 1월 9일 이천에서 열린 이동장관실에서 양돈업계의 건의를 받고 품질개선비를 축산경영자금으로 확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양돈업계의 현안을 정확히 꿰뚫고 대안을 제시한데 대해 양돈농가들은 큰 환영과 함께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축산경영자금이 기존의 품질개선비와 같이 정부의 보조인지 아니면 융자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농림부 실무진들도 아직 구체적인 자금의 성격이나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IMF 한파 이후에 양돈농가들은 사료외상기간 단축, 장기간의 생산비 이하의 돈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농가부채 증가 등으로 자금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말 정부가 농가부채에 대해 2년간 상환을 연기해줬으나, 수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 기업양돈농가들의 경우 이런저런 사유로 부채연기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또한 WTO 협정에 위배돼 곤란하다면 이름을 바꿔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년에도 돼지고기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양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격돈을 생산하는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어떤 명목으로든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쌓아올린 수출기반이 허물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양돈**